

편모슬하 어린이 '나홀로 집에'

관악구 사회복지 조사결과, 3명중 2명 보살핌 없이 방치

학생있는 저소득층 51% 교육신경 못써...정부지원 희망

조연현 기자

편부·모 슬하에서 자라는 어린이 3명 중 2명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생업활동에 바빠 방과후 아무런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4일 나타났다.

서울 관악구 보건복지사무소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관내 저소득 주민 1천9백7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욕구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

중 모자·부자세대 3백66세대 가운데 2백45세대의 자녀가 방과후 학원에도 가지 않고 학습지도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에 따라 이들 편부, 편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자원봉사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2백2세대(57%)가 학교공부, 46세대(13%)가 진로 등 생활지도상담, 39세대(11%)가 특기지도를 들었다.

또 자녀가 학교에 재학(고등학교까지)중인 7백20세대 가운데 3

백71세대(51.5%)는 '가계 살림이 바빠서 교육에 신경 쓸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'고 응답했고, 1백50세대(20.8%)만이 '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학원에 보내거나 학습지를 구독케 하고 있다'고 응답했다. 특히 이 가운데 1백89세대(26.3%)의 자녀들은 점심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이와 함께 자녀의 학습부진 원인에 대해 응답한 5백92세대 가운데 2백47세대(41.7%)가 '지도할 어른이 없어서'라고 답했으며, 다

음으로 △1백36세대(22.9%)가 학원에 보내지 않아서 △61세대(10.4%)가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△52세대(8.7%)가 공부할 공간이 없어서 등으로 밝혔다.

그러나 조사대상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거나 공부할 여건을 조성해 주지 못하고 있지만 95% 이상이 자녀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갖기를 원할 만큼 교육열이 높아 방과후 자녀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희망했다.